

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또는 대여등의 금지) 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용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자의 승인을 받아 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21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기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쌀輸入開放反對에관한決議案

提案年月日：1992. 12

提 案 者：産業委員會

1. 主 文：별첨

2. 提案事由 및 骨子

가. 提案事由

- 쌀이 우리나라의 主食인 동시에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고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 쌀수입개방은 농업생산기반 붕괴, 농촌의 폐쇄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 어려운 우리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를 천명키 위함.

나. 主要骨子

- 우리의 쌀은 농가소득유지 및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대상이 될수 없음.
- 쌀 수입개방할 경우 농업생산 기반 붕괴, 농촌의 폐쇄화를 초래하므로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요청
- 대구시 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을 천명

3. 參考資料

- 결의안 채택의 배경
- “쌀시장 개방불가” 주장 이유

쌀輸入開放 反對에 관한 決議(案)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大勢論”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대구직할시의회는 24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의 합리적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파멸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구직할시의회는 정부가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요청한다.

넷째, 대구직할시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대구직할시의회 의원일동

決議案 채택에 따른 背景 說明

I.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1990년말로 종결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대립 때문이었음.
 - 그러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생협 사항에 대한 합의를 세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특히 낙후된 국내농업 여건상

-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며
- 최근에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국회 또한 그간 수차례 걸쳐 쌀수입개방반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II. 國內의 對應方案

- 불리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그 실례로 지난해 농협이 [쌀 수입개방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천3백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 하였고 이 사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당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높여 주었음.
- 또한 언론 등 국내일각에서는 UR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쌀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 및 시군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UR협상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불가”를 주장하는 이유

최근 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쌀시장 개방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91%가 외국쌀은 절대로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개방에 반대한 반면, 외국쌀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했다.

절대다수의 우리국민들이 이처럼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다.

쌀을 제외하면 양곡자급율이 10%이하인 우리의 현실에서 수입개방으로 인해 쌀
마지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실질적으로 위협

둘째,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교역시 장기간 수송 및 보관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으로 처리됨

셋째, 쌀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해 준다.

- － 수자원 보전기능 : 논년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60%에 달함
- － 홍수조절 기능 : 유사시 전국의 논은 일시에 총23억톤 정도의 물을 저장함. 이
수량은 국내의 홍수조절용 댐 6개의 총저수량 15억3천만톤의 1.5배
- － 대기정화기능 : 임야의 1/3인 농경지에서 연간 7,000~8,000톤의 산소 공급 탄
산가스 약 1억톤 흡수(농작물중 벼가 가장 많이 작용함)
- － 토양보전 기능 : 홍수와 풍해로 인한 토양유실 방지

넷째, 쌀은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쌀은 우리나라 총경지면적의 60%이상에서 생산되고 있고, 전체농가의 85%인
150만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음.

다섯째, 장래의 통일에 대비하여 쌀 생산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미곡생산이 적조하여 식량을 옥수수등 잡곡에 많이 의존, 통일에 대
비 우리는 최소한 현재의 쌀생산 기반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10. 都市計劃施設(수성구 상동~가창면 대한중석간도로)決定案 審査報告書

1. 審査過程

가. 提出日字 : 1992年 12月 12日

나. 提 出 者 : 大邱直轄市長(都市計劃局長)

다. 回附日字 : 1992年 12月 12日

라. 上程日字 : 第16回 大邱直轄市議會(定期會)

第3次 建設委員會('92. 12. 21) 上程

第3次 建設委員會('92. 12. 21)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都市計劃局長 權震鉉)

가. 提案事由

- 파동구간 교통체증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나. 主要骨子

- 位 置 : 수성구 상동~가창면 대한중석간